

22대 개원 앞두고 '희망-아쉬움' 교차

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지역 당선인과 낙선인의 처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총선 당선인은 상임위원회 선결과 남은 임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지만 낙선인은 자신이 4년 간 머물렀던 방에서 조금씩 짐을 빼며 돌아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내달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선 10명 당선인 모임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도당위원장은 22대 전반기 국회 구상에 대한 당선인의 계획과 함께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3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확정되면 민주당 소속 전체의원에 대한 상임위 신청이 이어진다.

이에 앞서 전북 당선인들 간 상임위 쏠림 방지를 위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찬대 의원이 강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초선 의원 상임위 우선 분배'와 3



민주당 새달 9일 당선자 모임 의원간 '상임위 쏠림방지' 도모 낙선 의원들은 사무실 정리 돌입 각종자료 넘기고 향후행보 구상

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장 전문성 최우선 고려'를 원내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은 희망 상임위에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는 상임위 또는 중복으로 배치될 수 있다.

민주당 전북 초선은 이성운·박희승 당선인 2명이다.

이성운 당선인은 현 정권과 검찰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법제사법위원

회 배정을 원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미래 조배숙 당선인도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전북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만날 공산이 크다.

박희승 당선인은 남원·진안·임실·순창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위해 당초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자신 지역구 개발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상임위 변경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국가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 주민 이해와 지역 발전과 연계돼 있는 현안사업 해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교배를 마친 낙선인들은 4년 동안 몸담았던 의원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향후 행보를 구상하고 있다.

낙선된 일부 의원실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보존·기록하기 위해 국회기록보관소에 각종 자료와 사진, 상장, 트로피 등을 건네면서 뺄뺄이 차 있던 책장이 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중순부터는 당선인들에 대한 의원실 배정을 위해 도배 등을 새롭게 해야 하는 관계로 사무실 자체를 비워줘야 하는 '미움 아픈' 수순을 밟게 된다.

새로운 의원실 배정의 경우 정당 원내대표가 의원별 선수 우선으로 정하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22대 낙선인들은 당분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가정 등을 돌보며 휴지기기를 갖고 향후 정치 일정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민형기자

영수회담 의제 조율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가 이번 주에는 어렵게 됐다. 양측은 25일 오후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의제와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2차 실무회동서 견해차 못 좁혀 채상병 특검 등 제시 불편 기색 이번 주 회동 계획 사실상 불발

지난 23일에 이은 두 번째 실무회동도 양측이 회담 의제를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큰 틀의 의제는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만나지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회담 2차 회동에서 저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러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제안

에 민주당은 지도부 상의를 거쳐 추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천 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던"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제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10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지는 것인데, 저희는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회담 성사는 무산됐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예정돼 있다. /서울=최홍은기자

"푸드테크 메카 익산"

전국 최초 연구지원센터 유치 한병도,신산업 육성 거점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26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된 사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 시설을 구축한다.

익산시가 선정된 전국 최초 식물성 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이뤄진다.

이번 사업 선정은 시작으로 익산시는 지역 푸드테크 기업 유치 기반 조성하고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신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 선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익산이 식품산업을 넘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우원식 출마 선언... '4자 경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5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국회의장에 출마한다"며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의 경선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내 국회의장직 도전자는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상 6선), 정성호 의원(5선) 4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제22대 총선 당선인 릴레이인터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도민들에게 당선소감 한마디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초선 때 그 마음 변치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흔들림없이 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과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최우선 실행 공약과 실행 전략

선거 공약으로 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3배 빠르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우선 완주군의 수소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최초 국가산업단지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세계 일류 수소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입법을 통해 완주 시(市) 승격을 추진하고, 만경강 주변에 레포츠 시설을 조성해서 완주 군민들이 첨단경제특별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도 올해 개장하는 국립지덕권 산림 치유원과 연계해서 신광재 산림교원을 조성하고, 산림을 활용한 치유산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섬진강, 용담호, 마이산 등 진안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휴양관광

지역강점 살려 특화지구 지정 교통망구축정주여건 개선도 민생살피고희망주는정치

특별시로 만들 것입니다.

무주군은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의 기반 위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등을 조성해 태권도, 스포츠, 생태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고, 동서횡단 고속도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사통팔달의 청정 태권특별시 무주로 만들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의원님의 역할은

3선 중진의원으로서 초·재선과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 간에 균형 있는 의견 조율과 무게감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조화롭게 이끌고 여야 협치에 필요한 중재 역할도 대체로 3선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균형과 협의를 잘 이끌어내도록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 8년간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균형발전, 지방소멸, 그리고 농업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완주·진안·무주 각 군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법 상의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미래첨단

산업지구 등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사의 허가를 얻어 기후위기시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도록 농생명산업, 문화·휴양 복합단지 조성, 수소산업 등을 키워내는 방안도 찾고자 합니다. 그 방안이 실천되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우리 지역이 명실상부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전북과 전국에 연결하고, 교육·문화 등 정주여건을 갖추어 간다면 각군의 장점에 맞게 발전하는 특별시가 될 것이라 봅니다. 상임위를 비롯하여 평소 관심있던 분야, 그리고 지역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계획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총선 민심을 기억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채·양·명·주 라 말하는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특검, 양명고속도로 의혹, 김건희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당내 필요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구소멸 극복,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해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시작으로 하나씩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치, 그런 정치에 민주당에게 맡기니 잘했다는 평가를 듣고,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큼니다. /김용기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공감대'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는 25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제282차 전북시군회의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각 시군의회 의장과 최영일 순창군수 등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손준석 의원과

전북시군의회장협의회 순창서 월례회 지방소멸대응기금개선 등의결

조정희 의원은 지역 발전 및 선진회화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3건의 심의안이 상정되어 원안결 됐다. 순

창군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규제 완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주군의회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운영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제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을 건의했다. /순창=이홍식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 선출

"검찰독제 청산앞장설 것"

조국혁신당이 22대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민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차용됐다. 현역 초선(대진 중구)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에 맞서기 위해 가장 강하고 단호하고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민형기자



25일 조국혁신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조국 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당선인. /연합뉴스